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서울특별시 강북구를	
후보자명	유대운	기호	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재산세 100% 공동과세로 강·남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겠습니다.				
<p>같은 서울이지만 강남과 강북지역은 차이가 큼니다.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재정불균형 때문입니다. 100%공동과세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강북지역에 예산을 더 주어야 합니다.</p> <p>○ 현 재산세 50% 공동과세는 반쪽자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던 1995년 10월 시정질의에서 강남·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 재정운영조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.</li><li>- 이를 계기로 강남·북 재정불균형 해소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작되어 2011년 50% 공동과세로 강북구 재산세입은 당초 204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한 422억원이 됐습니다.</li><li>- 현재 50% 공동과세에서 강남구와 강북구는 재산세 세입은 1,887억원과 422억원으로 격차가 4.5배나 되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.</li></ul> <p>○ 100% 공동과세로 강남·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100% 재산세 공동과세시 강북구 재산세입은 2011년 기준으로 약 653억으로 증가하며,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강북구의 복지및 지역개발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.</li><li>- 과거 70년대 강남개발에 서울 강북 주민들이 낸 세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재산세 100% 공동과세는 투자재원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.</li></ul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고도제한 완화하여 강북발전의 토대를 세우겠습니다.				
<p>북한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강북구는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.</p>					

- 강북구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로 지구로 건축물의 고도가 5층 20m이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28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
-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강북구 지역은 토지이용에 있어 강남 지역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강남북의 불균형 발전에 더하여 고도제한은 강북구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강북구 발전의 토대를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.

공약번호: 3

공약 제목 :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성장이고 국민 화합입니다.

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누구나 일 할 수 있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.

#### ○ 일자리 만들기

- 경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국가중 제일 긴 노동시간(연간 2,193시간)을 2,000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릴수 있습니다.
-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OECD국가의 평균 70%의 고용률을 달성하겠습니다.
- 직업훈련과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를 늘려서 취업난과 구인난을 해소 시켜하겠습니다.

#### ○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- 현재 50%인 비정규직 비율을 25%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.
-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받도록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습니다.
- 최저 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에 50%로 높여서 현실화하겠습니다.

#### ○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보험의 사각지대(전체 취업자의 59%)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.</li> <li>-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겠습니다.</li> <li>-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.</li> </ul>	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보편적 복지(급식·보육·의료)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
<p>큰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먹고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. 사회적 약자가 우선 배려 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산장려와 더불어 의무보육도 같이 가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0~5세아동의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전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.</li> <li>- 국·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영·유아 인원대비 20%에서 40%까지 확대하겠습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초·중등학교 의무교육에는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돼야 합니다.</li> <li>○ 대학등록금을 50%줄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.</li> <li>○ 건강보험으로 병원 가는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보험이 적용 대상을 더 추가하고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현행 62%에서 90%까지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어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경제민주화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음성적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세금부담률의 공평성을 기해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으로 확보하겠습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으로 하향조정하여 1%특권층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습니다.</li> </ul>	
공약번호: 5	<p>공약 제목 : 서민의 생활비는 줄이고 자영업자도 편안히 장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</p> <p>서민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재벌의 횡포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야 하겠습니다.</p> <p>○ 서민 생활비 절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류세를 내리겠습니다. 올라만 가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에 붙는 세율을 탄력적용하고 관세인하, 적정환율 유지등 재벌 정유사의 관리, 감독하겠습니다.</li> <li>- 가계부채를 경감하겠습니다. 생계비 대출을 받는 서민을 위해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인 39%를 30%로 낮추고,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</li> <li>- 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. 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 청구권,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등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.</li> </ul> <p>○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동반성장해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재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아내겠습니다.</li> <li>-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을 막는 ‘징벌적 손해배상제도’ 도입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규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도 동반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li>- 소상공인 제품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도 늘리겠습니다.</li> <li>-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.</li> </ul>